

“힘들었던 ‘사춘기’ 공유하고 싶어요”

악동뮤지션, 내일 정규 2집 파트 2 ‘사춘기-하’ 발표

“‘사춘기’ 앨범을 만들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남매듀오 ‘악동뮤지션’(이찬혁·이수현)이 내일 발매될 정규 2집 파트 2적인 ‘사춘기-하’를 만들면서 사춘기를 몰았다.

이찬혁은 앨범 발매에 앞서 최근 서울 강남구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앨범 발매 기념 청음시사회에서 “부담감을 덜어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도 다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반 발매를 앞둔 현재에는 그 사춘기가 끝난 듯하다. “후역이 갖든 음반이다. 많은 분들과 내가 느낀 소중한 감정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발매한 데뷔앨범 ‘플레이(PLAY)’로 음원차트를 석권한 악동뮤지션은 지난해 5월 정규 2집 파트 1적인 ‘사춘기-상’을 지난 5월 공개했다. 데뷔 이후 불은 ‘음원강자’라는 타이틀답게 타이틀곡 ‘리바이(RE-BY)’를 비롯해 수록곡 대부분 역시 음원차트를 휩쓸었다.

그럼에도 이찬혁은 정규 2집의 완결인 ‘사춘기-하’를 만들면서 불안했다고 했다. “1집 ‘플레이’는 발랄하고 순수한 노래로 꾸민다면 ‘하’는 순수한 음악을 하겠다는 마음은 지켜가면서 ‘사춘기-상’에서는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했고 그 점에서는 만족해요. 이번 앨범에는 차분한 겨울 감성을 담고 싶었어요.”

타이틀 ‘사춘기’의 기는 유체·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인 사춘기(思春期)의 기(期)를 한자 기(記)로 대신했다. 결국 앨범에 실린 곡들은 이찬혁 본인이 겪은 사춘기의 또 다른 기록인 셈이다.

앨범은 한겨울에 발매하지만 봄기운이 물씬하다. ‘생각(思)에 봄(春)이 오는 시기’로 요약되는 ‘사춘기’로 시간이 흐르면서 무르익는 사춘기의 감정을 노래한다. 스트링으로 가득한 발라드, 재치하고 솔직한 빈티지 풍의 곡, 포크 팝 등 다양한 장르가 훌쩍 성장한 멤버들의 정서를 반영한다.

재즈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는 첫곡 ‘생방송’을 비롯해 수록곡 모두를 짧게 삽입한 20분짜리 단편 음악영화도 두 멤버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았다. 일본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이기도 한 단편영화는 이찬혁과 이수현이 티격태격하다, 각자의 짧은 여행 끝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과정을 그린다.

특히 이찬혁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했다. 단편영화를 만든 용이 감독에게 연기를 해도 되겠다는 청원을 들은 동생 이수현은 “오빠의 첫 연기가 보니 제가 더 걱정됐다”고 했다.

이찬혁은 앨범 발매와 함께 공개되는 이 뮤직비디오 연기를 두고 “질책 받을 준비가 됐다”고 했다.

/뉴스



‘더 킹’·‘공조’ 1월 18일 동시 개봉

조인성·정우성 주연 ‘더 킹’(감독 한재림)과 현빈·유해진 주연 ‘공조’(감독 김성훈)가 같은 날 개봉한다.

‘더 킹’ 배급을 맡은 뉴(NEW)는 지난해 12월 29일 ‘더 킹’이 오는 1월 18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공조’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 또한 이날 개봉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로써 조인성·정우성·현빈·유해진 등 네 배우가 설 연휴 극장이 패권을 놓고 강대강으로 맞붙게 됐다.

‘더 킹’은 ‘관상’(2013) ‘우아한 세계’(2007) 등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 작품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쥐기 위해 달려가는 검사 ‘태수’(조인성)의 이야기를 그린다. 태수 역의 조인성과 그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강식’ 역의 정우성이 어떤 연기 호흡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인다.

‘더 킹’ 1차 예고편은 조회수 717만건을 기록하며 올해 1월 최고 기대작 중 하나임을 증명했다. 조인성이 2008년 ‘쌍화점’ 이후 9년 만에 스크린 복귀한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현빈과 유해진이 호흡을 맞춘 ‘공조’는 북한 형사와 남한 형사의 공조 수사를 담은 작품이다. 현빈이 특수부대 출신 형사 ‘철령’을, 유해진이 정직 처분 중인 생계형 형사 ‘진태’를 맡아 호흡을 맞춘다. ‘공조’ 또한 ‘더 킹’ 못지 않은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두 배우에 더해 김주혁·장영남·이동휘·윤아 등이 힘을 보탤다.

‘공조’가 기대를 거는 건 역시 유해진이다. 유해진은 지난해 10월 코미디 영화 ‘덕이’로 7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아 최근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한 바 있다. 유해진이 또 통하기만 한다면 ‘공조’가 ‘더 킹’에 밀릴 게 없다는 평가다.

/뉴스

새해 정유년, 벽두부터 신구 ‘걸그룹 대전’

1월부터 인기를 앞다투는 신구 걸그룹들이 대거 컴백을 예고하면서 가요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세대부터 대세로 떠오른 그룹, 재정비를 통해 재기를 노리는 그룹까지 각양각색이다.

보통 걸그룹 활동 시기는 댄스곡이 정점인 여름 시즌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연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 정규 앨범이 아닌, 싱글이 가요계 생태계의 주축이 되면서 1년에 여러 차례 신곡을 발표하는 걸 감안한 것이다.

초반부터 기세몰이 벌어지는 이유다. 컴백 자체가 이슈가 되는 대세그룹, 와신상담하는 걸그룹, 솔로 활동을 하는 걸그룹 멤버 등으로 나눠 각 그룹마다 강점과 약점을 키워드로 컴백 포인트를 살펴봤다.

◆S.E.S(1월2일 스페셜 앨범 발표)
▲강점 : 1세대 아이돌의 귀환은 이제

1세대 아이돌 S.E.S부터 AOA·13인조 우주소녀 까지

가요계에 보증수표가 됐다. 1세대 걸그룹의 상징으로 14년 만에 컴백한 S.E.S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다.

▲약점 : 매력 넘치는 걸그룹들이 가득한 가요계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음악을 선보일 지가 관건.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에 그친다면 최신 사운드에 이미 익숙해진 현재 10대에게 호소하기 힘들 수 있다.

◆AOA(1월2일 정규 1집 ‘엔젤스 노크’ 발표)

▲강점 :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는 화제성. 아울러 대선배 S.E.S와 같은 날 앨범을 발표한다는 주목성까지 더했다.

▲약점 : ‘짧은 치마’ ‘심쿵해’ ‘사뿐사뿐’ 등 주로 색시함을 강조한 히트곡

으로 이미지가 소비됨. 살현 등 주요 멤버로 쌓은 인지도. 더블 타이틀곡 ‘익스큐즈미’ VS ‘빙빙’으로 활동하면서 보여주려는 다양한 모습이 통할 지가 관건이다.

◆걸스데이(1월 예정)
▲강점 : 멤버 헤리가 ‘응답하라 1988’을 통해 톱스타로 발돋움하면서 쌓은 인지도.

▲약점 : 지난해 7월 발매한 정규 2집 ‘러브’가 기대만큼 인기를 누리지 못했고 이후 활동이 뜸한 상태로, 대세 걸그룹이라는 인식이 약해졌다.

◆에이프릴(1월4일 미니앨범 ‘프렐류드(Prelude)’ 발매)

▲강점 : 채경과 DSP미디어 연습생 레이첼을 정식 멤버로 영입하고 6인조

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신선함을 안긴. 카라, 레인보우 등 DSP 간판 걸그룹이 잇달라 해체하면서 이들에게 집중되는 화사의 화력도 기대된다.

▲약점 : 2015년 데뷔 이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점.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다른 그룹이나 가수의 지원사격이 부족함.

◆우주소녀(1월4일 새 앨범)
▲강점 : CF 등에서 활약하며 ‘제2의 살현’으로 통한 중국인 멤버 성소가 각종 예능프로그램 활약을 통해 쌓은 인지도. 음악 채널 애프터 ‘프로듀스 101’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오아이’ 멤버이기도 한 유연정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약점 : 13인조 대형 걸그룹의 색깔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콘셉트 여부가 승부수다.

/뉴스

김동완 목소리 재능기부 캠페인 나서

그룹 ‘신화’ 멤버 겸 뮤지컬배우 김동완이 목소리 재능기부 캠페인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29일 소속사 CI ENT에 따르면 김동완은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꿈 백과사전’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C제일은행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6’에 홍보대사로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 및 경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영화·미술작품·문화재·청소년 경제교육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타들의 목소리 기부를 통해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배우 송중기와 이종석이 목소리를 기부했다.

김동완은 이번 시즌을 통해 제작되는 꿈 백과사전 프로젝트에서 ‘방송연출가’ 스크립트를 녹음했다. CI ENT는 “특유의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을 잘 담아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봉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홍보 영상에도 출연했다.

/뉴스

다함께 열어나가는 으뜸도시 **완주**

역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완주**에서 자연의 힐링을 찾아가세요.

대아저수지 화암사 위봉사 밤티마을 대둔산 구름다리

산 좋고 물 맑은 **완주**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볼거리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謹賀新年**